

☀ 동부화재

「2009년 연도상 시상식 및 프로미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동부화재는 4월 2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 임직원과 영업가족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연도상 시상식 및 프로미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서는 부천지점 상동지사의 방순옥씨와 포항지점 포항남부대리점 신명희씨가 설계사 부문과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영예의 판매왕에 올라 연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2009년 연도상 시상식 및 프로미 한마음 페스티벌은 회사의 비전과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비전 달성의 의지를 다지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1995년 이후 15년 만에 모든 임직원 및 영업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소비자평가단 발대



동부화재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평가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동부화재의 이번 소비자평가제도 운영

은 고객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부화재는 30~40대 기혼여성 25명을 1기 소비자패널로 위촉하고 4월 21일 동부금융센터에서 제1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소비자패널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각종 상품 및 고객서비스에 대한 체험 및 평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 조사, 상품 개발 아이디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개별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달에 한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동부화재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 전국 441개 초등학교 582개 학급 17,029명 참가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화재안전교육 확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의 후원을 받아 소방방재청과 함

께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에는 올해 전국의 전국 441개 초등학교 582개 학급 17,029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화재 및 재난 안전과 예방에 관한 어린이 학습용 만화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와 「우리는 안전어린이」 2권이 제공되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이들 교재로 한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5월 17일(월)에 1차 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 각 시·도별 최우수 학급(17개)을 대상으로 5월 26일(수) 2차 평가를 치른다. 수상학교는 학급 평균에 의해 결정되며, 6월 11일(금) 최종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1개 학급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 학급에는 소방방재청장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 5개 학급에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과 상금 60만원, ▲불조심어린이상 9개 학급에게는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상과 함께 상금 40만원이 수여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해당학급의 지도교사 3명에게는 지도교사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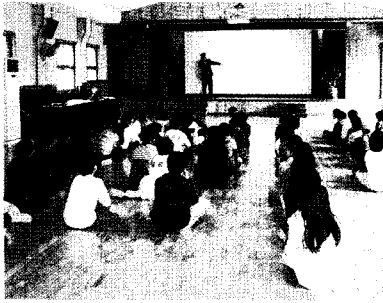
또한 참가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실천·체험에 관한 수기 및 제안도 모집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화재안전 계몽교육 실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신문사, 윤중초등학교, 서경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등 20회에 걸쳐 약 2,720여명에게 「화재안전 계몽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재안전 계몽교육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취약시설과 특수건물 관계자, 군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교육을 신

청하는 단체나 직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예방 상식 및 화재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화재안전 봉사활동 실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및 사회적 공헌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직원들이 토·일요일, 공휴일을 활용하여, 정화양로원, 명륜보육원 등 전국의 10개 아

동 및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 시설은 특성상 피난이 어려우므로 화재 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수신기, 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유도등, 피난로 확보, 소화기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화재안전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필요물품 증정, 청소, 목욕 등 일반 봉사활동도 펼쳤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총 36개조로 나누어 1년간 108곳에 대해 화재안전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 화재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약품(주)에 「KFPA 화재안전인정」 수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대약품(주)를 화재위험관리 최우수업체로 선정하고, 2월 25일 현대약품(주) 합천공장에서 방재시험연구원 윤희상 상무와 현대약품(주) 황이순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FPA 화재안전인정서 및 인정패를 수여하였다.



현대약품(주) 합천공장은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소화·경보·피난 등 방화 관련 시설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여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아 2009년 천안공장에 이어 이번 한국화재보험협회의 「KFPA 화재안전인정」 평가에서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사업장의 화재안전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KFPA 화재안전인정」 제도는 협회 방재전문가들이 해당 업체를 정밀위험진단한 후 엄격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한 우수업체에 화재안전인정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정유효기간은 3년이고, 1년마다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재 금호석유화학(주), (주)만도 등의 사업장이 화재안전인정을 획득하였다.

방재시험연구원, 서울소방학교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3월 10일 전문소방인 양성 교육기관인 서울소방학교와 화재안전교육 및 소방기술정보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방재시험연구원과 서울소방학교는 화재안전 및 소방교육 협력, 공동워크숍, 소방기술 정보자료의 상호이용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화재안전기술을 증진하고 국가 소방기술 향상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